

지역문화자원으로서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고찰

—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방미영**

■ 목차

1. 머리말
2.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유교문화
3. 유교문화의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4.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고찰
5. 맺음말

【국문요약】

최근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향교와 서원은 지역문화의 원형 자원으로서 활용도가 그 어느 것보다 높다. 그러나 향교와 서원은 전통적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화콘텐츠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교활성화사업단을 통해 유교아카데미, 청소년인성교육,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청년 유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자생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담고 있는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으로 등록되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원이 주목받고 있지만 향교와 서원의 문화관광프로그램에 20대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다. 뉴미디어시대에 유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20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논문은 유교문화의 지역문화자원을 위해 20대가 가지고 있는 유교문화에 대한 교육적 실증분석을 토대로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유교문화 활성화, 향교, 서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 본 연구는 2019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논문접수일(2019년 9월 19일), 수정일(2019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2019년 11월 20일)

1. 머리말

지난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법률 제정되었고, 그해 7월 29일 공포되었다.¹⁾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진흥원이 개원되어 지역의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적 환경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를 토 대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운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운영 목표를 표명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문화의 활성화에 있어 유교문화의 활용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다. 이수환(2017)은 유교문화의 원형을 알 수 있는 향교와 서원을 한국의 지성 문화의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유산이라고 하였다. 향교와 서원은 지역문화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자원이다. 왜냐하면 향교와 서원은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중심 공간인 동시에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향교와 서원에 남아 있는 건축과 경관, 제향, 교육 등은 유무형의 문화자원으로 지역 문화의 특징과 다양성을 담고 있다.²⁾

근대화시기를 거치면서 유교문화의 쇠락은 지역문화를 거론하면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연계성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한국의 서원’의 등재는 우리 사회에서 향교·서원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미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은 현대사회 속에서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점을 열어왔다. 향교·서원의 공간을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여 유교문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주된 논점이다. 관광산업과 유교문화와의 연계는 유교문화를 더 이상 형이상학적 이념과 사상의 논쟁에 머물지 않고 대중문화로서 현대인들과의 공감대를 유출시키면서 향교와 서원이 지녔던 본연의 정체성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향교와 서원의 본연의 역할인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등에 대한 연계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문화의 뿌리로서의 가치를 두고 있다.

잘 알려진 바처럼, 유교의 본원인 중국의 경우 4대 서원 중 하나로 꼽히는 후난대학교 부설기관인 약록서원은 역사학과 철학의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20명이 넘는 교수진과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문에 매진하고 있다. 약록서원은 정기적으로 국민대 한국학연구소와 서원학회와의 꾸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문화자원이다.³⁾ 특히 21세기 문화다원주의가 도래되

1) 문화체육관광부 : <https://www.mcst.go.kr>, 2019.04.06. 검색.

2) 이수환, 「2000년 이후 향교서원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집』, 제67집, 2017, p.125.

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p.7.

면서 서구 중심의 문화의 이탈현상을 통해 동양의 유교문화가 주목받으면서 유교문화권인 한국의 정신 문화에도 이목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문화자원으로서 향교와 서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와 서원을 정신문화와 규범문화로서의 가치를 통해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등 유교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⁴⁾ 본 논문은 향교와 서원을 통한 유교문화가 지역문화자원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유교문화

진성수(2018)는 유교문화의 이미지를 거론하면서 한국현대사에서 유교의 이미지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된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가 유교문화를 선비의 품위와 검소함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원천으로 언급하면서도, 갑질 문화 등 사회적 문제에 당면할 때는 청산해야 할 구태의연한 부정적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수직적인 유교문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⁵⁾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향교와 서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지역문화와 어떻게 연계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는 234개의 향교와 500여개의 서원 있다. 유교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중심인 향교는 성균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립교육기관으로, 제향 이외에 도덕성 회복과 예절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림단체의 고령화로 인해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⁶⁾

오늘날 사학교육기관인 서원은 조선말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로 위기를 맞았으나, 해방이후 복원되기 시작하여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로 다시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담고있는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 문화재청은 9곳의 서원을 묶어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등록을 신청했으며,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올 6월 30일 개막하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이다.⁷⁾ 한국서원이 유네스코

4) 이하나, 「논어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민족문화』, 2013, p.2.

5) 진성수, 「한국 유교 현황과 현대화 전략」,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3집, 2018, pp.185-216.

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pp.32-33.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향교와 서원이 대중문화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내재해 있다.

첫 번째는 향교와 서원이 대중화를 위한 공간 구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⁸⁾ 두 번째는 향교와 서원을 연계한 지역문화자원 개발에 있어 자원에 대한 평가와 지역주민 중심의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⁹⁾ 세 번째는 향교와 서원에 대한 자산적 가치를 보존에서 자원으로 재창조하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¹⁰⁾

위의 세 가지는 향교와 서원이 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상우(2014)는 유교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정신을 실천하는 선비정신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정신문화 유산이라고 하였다.¹¹⁾ 유교의 문화유산은 향교와 서원으로 대표되는 유형의 문화유산과 인물, 사상, 제례 등 무형의 유산으로 나눈다. 지역사회의 정신사를 이끌어 온 유·무형의 유교문화 유산은 전통체험과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활용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저해 요소로는 지역주민 중심의 추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향교와 서원이 지역문화와 연계성을 갖는 문화관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령화된 유럽 사회가 문화관광의 소비자 니즈(needs)를 반영하는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청년유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유사제도 또한 대부분 전문화 된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 않고 있어 향교와 서원이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서 대중문화로의 편입은 더딘 상태다.

3. 유교문화의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은 전국 234개 향교와 500여 개 서원 중 2017년 15개소가, 2018년에는 10개소, 2019년에는 14개소가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은 향교와 서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원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통유교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7) 출처: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 2019년 6월 4일 검색.

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p.33.

9) 유광민·김남조, 「Space Syntax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전략」, 『관광학연구』, 제33권 제6호, 2009, pp.75-92.

10)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11) 한상우, 「경남지역 유교·선비문화유산 활용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포커스』, 2014, pp1-37.

제고하지는 데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교문화의 관광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전통 문화의 원형에 대한 문화의 독창성을 구축하지는 광의의 목적이 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운영된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은 [표 1] 같이 지역문화와 연계한 탐방 코스가 운영되었다. 전국 15곳에서 70회(1회차 운영인원 30명) 차 운영에 2,322명이 참가하였는데,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6점으로 평가되어 유교문화와 지역문화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¹²⁾

[표 1] 2017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¹³⁾

지역	명칭	프로그램명	지역문화와 연계 탐방 코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향교	문향 파주, 유학의 지성을 찾아 오늘의 지혜를 배우다.	반구정, 우계기념관, 윤관장군묘, 화석정
충청 청주시	청주향교	士 = 樂, Know = 樂 (사는 락, 노는 락)	화양서원, 만동묘, 화양구곡, 우암 송시열 묘소, 옥산서원 독산당, 포항(호미곶, 죽도시장, 등대박물관, 새천년기념관), 경주(양동마을, 동궁, 월지, 첨성대, 월정교 야경, 최부자댁, 경주향교, 불국사, 석굴암)
대전광역시	회덕향교	천년의 덕을 품은 충청 5현을 만나다	동춘당, 남간정사, 명재고택, 돈암서원
경남 사천군	구계서원	사천으로 오이소	구계서원, 사천읍성, 곤양향교, 응취루, 곤양읍성, 세종단종태실지, 남사리예담촌, 면우 광종석 생가, 남명 조식의 묘, 산천재, 덕천서원, 별주부 캠핑장
광주광역시	월봉서원	월봉서원이 건네는 기세등등 여유만만	우양서원, 풍영정, 광주향교, 양림동 문화역사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역사길(충장사, 풍암정, 바람의 언덕, 취가정, 환벽당)
경기도 양주시	양주향교	선비의 ‘멋’과 ‘흥’을 만나다	양주관아, 선정비, 어사대비, 권율장군묘, 시립미술관, 조각공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향교	전통문화체험과 힐링을 함께	임경당, 경포대, 해운정, 오봉서원, 회암영당, 송담서원, 황산사, 오죽헌, 선교장, 임영관3문(객사문), 왕곡마을
강원도 춘천시	춘천향교	거수마룡(車水馬龍) 춘천향교 청춘을 품다.	유인석 유적지, 김유정 문학촌, 신승겸 유적지, 애니메이션 박물관
강원도 정선군	정선향교	정이 흐르는 선	화암동굴, 아라리촌, 정선5일장
경북 영주시	영주향교	영주 선비와 함께 하는 가을 나들이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소백산 죽계구곡, 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제민루, 삼판서 고택, 기려자비
경북 의성군	의성향교	의성향교와 함께하는 힐링스데이	만취당, 조문국 박물관, 산운마을 운곡당, 빙계서원, 태을전, 성냥공장

12)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7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7, p.66.

부산광역시	기장향교	유교문화관광의 틀을 넓히다	일광해수욕장, 삼성대, 황학대, 어사암, 죽성왜성, 기장읍성, 기장을 공덕비군, 잔관청, 기장장터, 차나무군락지
경남 진주시	진주향교	남강을 따라 떠나는 선비들의 유유자적	진주성, 축석루, 부사정, 가호서원, 서산서원, 악양루
전남 화순군	능주향교	유생들의 타임머신! 오고(Oh~go!), 가고!(let's go!)	화순 전통시장, 한천자연휴양림, 화순 고인돌, 천불천담, 주자묘
제주도 제주시	제주향교	제주향교에서 놀멍 쉬멍 걸으멍	곳자왈, 정의향교, 성읍민속마을, 혼인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삼성혈, 용두암, 대정향교, 추사적거지, 차귀도해변

2018년에는 [표 2]와 같이 유교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전국 10개 체험관광 코스가 개발되어 61회 차 운영에 1,985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매우 만족한다’가 57.2%, ‘만족한다’가 36.4%로 93.6%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표 2] 2018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¹⁵⁾

지역	명칭	프로그램명	지역문화와 연계 코스
부산광역시	동래향교	충의의 고향,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동래유림	조선통신사역사관, 임진왜란 향진터, 동래읍성역사관, 장영실공원
광주광역시	월봉서원	기세등등 여유만만	광주 의향 상징길 ‘무등산 역사길 걷기’
경기도 양주시	양주향교	선비, 융합을 풀다	양주목관아, 양주별산대, 실학박물관, 노강서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향교	900년 역사가 서려있는 강릉향교	경포호수, 김시습기념관, 오죽헌해저박물관, 참소리박물관, 오봉서원
충북 청주시	청주향교	향교, 느티나무야 넌 보았니?	화양9곡, 고인쇄박물관
전북 전주시	전주향교	선비 길 꽃 걸음	오목대, 경기전, 김명관 고택, 칠보발전소, 무성서원
경북 영주시	영주향교	유교성지를 가봤니?	소백산둘레길, 부석사, 무섬마을
경북 의성군	의성향교	유림향기 가득한 의성향교	빙계팔경,, 빙계서원, 조문국사적지
경남 진주시	진주향교	진주호국성지 순례 및 선비체험	남사에담촌, 유림독립기념관, 덕천서원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향교	보멍! 배우멍! 놀멍!	추사적거지, 4.3공원, 격납고, 제주목관아지,, 오현단, 에랜드, 성읍리민속마을, 성산일출랜드

13)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7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7, 재인용.

14)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7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7, p.66.

15)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8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8, 재인용.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대해 2017년 89.2%, 2018년에 93.6%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향후 유교문화와 지역문화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첫 시행된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의 연령별 참가자들의 분포를 보면 [표 3]에서 처럼 20대가 5.62%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 다음 낮은 참여율은 30대로 8.64%를 나타냈다.

[표3] 2017년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참가 연령층 분포도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인원수	1,686	351	82	126	191	210	267	231
비율	100	24.07	5.62	8.64	13.10	14.4	18.3	15.8

두 번째로 운영 된 2018년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참가자는 [표 4]에서처럼 20대가 1.1%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두 번째 낮은 참여율은 30대로 2.7%의 참여율로 조사되었다.

[표4] 2018년도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연령별 참가자¹⁶⁾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인원수	1258	40	14	34	101	279	468	322
비율	100	3.2	1.1	2.7	8.0	22.2	37.2	25.6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서 참가한 연령층에 대한 증감은 [표 5]와 같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참가자 연령층 증감은 10대가 20.87%, 20대가 4.52%, 30대가 5.94%, 40대가 5.1% 각각 감소되었다. 이와 반대로 50대 연령층은 7.8%, 60대 연령층은 18.9%, 70대 이상 연령층은 9.8% 증가되었다. 40대 이하 연령층이 감소한 반면, 중장년층인 50대 이상 연령층은 증가 현상을 보였다.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은 전 연령층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지만 젊은층 특히 20대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 유교문화를 지역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 세대 간의 단절과 지속성장에 대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16)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8 유교문화활성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8, p.101.

한다. 왜냐하면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플랫폼에 올리는 문화에 익숙한 젊은층으로 하여금 향교·서원의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터넷 이용자 조사결과 젊은층은 뉴미디어시대에서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혜준(2019)은 10대와 20대 젊은층들은 사회적 교류와 다양한 정보 획득을 위해 뉴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¹⁸⁾ 이를 위해 젊은층이 유교 문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표5]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 2017년, 2018년 참여 연령별 증감 분포도¹⁹⁾

구분	합계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비율	100	2017	24.07	5.62	8.64	13.10	14.4	18.3	15.8
	100	2018	3.2	1.1	2.7	8.0	22.2	37.2	25.6
증감	100	2018년 대1비 2017년	▽ 20.87	▽4.52	▽5.94	▽5.1	△ 7.8	△ 18.9	△ 9.8

4.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고찰

기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향교·서원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에 대한 20대 연령층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현상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20대는 다양한 지식 습득으로 융복합 사고를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창의적 탐구정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연령으로 유교문화 등 전통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에서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20대의 주 연령층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유교문화의 지식의 근원이 되는 교육에 있어서 젊은 층이 기대하는 중요한 유교문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한다. 교육의 유형으로는 가정이 중심이 된 가정교육, 학문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이 있다. 광의의 사회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의미하고

17) MK 인터넷 뉴스는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의 국내 PC 및 모바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연령별로 젊은층인 10대(87.8%)와 20대(87.5%)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K 인터넷 뉴스, "성.연령별 대표 SNS는?", 2018년3월18일 입력, <https://www.mk.co.kr/news/print/2018/174305>

18) 이혜준, 「10대들의 뉴미디어 라이프, 너네 어떻게 노니?」, 『방송기자』, 46, 2019, pp.34-35.

19)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7년 종합보고서 및 2018년 종합보고서」, 참조 재구성

있다. 또한, 사회교육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문화를 직접 체험을 하는 체험(문화)교육 등 네 가지 분류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소 분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의 유형을 크게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체험(문화)교육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육은 가족의 본질과 사회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의 교육이다. 진성수(2014)는 가정교육을 조선의 주류학문인 주자학을 비판하며 실학을 강조했던 하곡(霞谷 1649-1736)을 통해 피력하였다. 진성수에 의하면 하곡은 앎을 실천 단계를 ‘개인→집→사회→국가’로 보고, 자녀가 자기정체성을 회복하고, 생활에서 예절과 도덕을 실천하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 재능 등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가정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보았다. 박종덕(2000)²⁰⁾은 가정교육을 가정이라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일상의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에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교육보다 조부모와 자식 간의 교육이 효과적인 것은 조부모의 지혜의 깊이가 젊은 부모의 지혜의 깊이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²¹⁾

둘째, 학교교육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다. 이기명·유수정(2010)은 학교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교는 공교육기관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치, 경제, 문화를 교육내용으로 삼아 이를 후대에게 전승하는 데 교육 목적이 있다고 한다. 나병현(2001)²²⁾은 공교육은 루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교육이 권리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것, 즉, 인권으로서의 교육 사상과 평등교육 사상이 어우러져서 오늘날의 공교육체제가 이루어진다.²³⁾

셋째, 사회교육은 교육기본법 제10조(사회교육)에서 국민의 평생교육형태의 교육이다. 이호영, 김상돈(2004)은 사회교육은 학습의 주체자를 교육서비스의 단순한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구축되어야 한다.²⁴⁾ 특히 박선영(2015)은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주창하였다. 시민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을 지닌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참여와 실천이다.²⁵⁾

넷째, 상술한 교육들은 이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체험학습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20) 박종덕, 「인성교육과 가정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2, pp.3-14.

21) 진성수, 「양명학으로 본 가정교육」, 『양명학』, 39, 2014, pp.31-57.

22) 나병현,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아시아교육연구』, 2(2), 2001, pp.139-159.

23) 이기명·유수정, 「교육이념과 학교교육목적 고찰」,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2010, pp.35-5.

24) 이호영·김상돈,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5권 제2호, 2004, pp.117-133.

25) 박선영, 「청소년 시민교육의 전달체계 수립과 발전방안」, 『청소년학연구』, 제22권 2호, 2015, pp.41-43.

필요가 있다.²⁶⁾ 고미숙(2006)은 체험교육을 경험을 통한 학습, 행함을 통한 배움이라 하였다. 이를 위해 체험교육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체험교육은 학습자의 인식의 변화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실천교육이다.²⁷⁾ 이용환(2007)은 체험교육에 대해 언어, 수사학, 논리학 등의 설교적 교육에서 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하였다.²⁸⁾

따라서 유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2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도입하여 유교문화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교육 중에서도 어느 교육이 청소년층에게 가장 중요한지 분석을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유형의 교육을 도출하여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집중교육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AHP란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기법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각각의 개인별 단위에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의견과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Saaty(1980)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다. AHP 는 주로 어떠한 목표(Goal)에 대한 각 요소의 중요도를 [표 6]과 같이 17개의 척도로 구별하여 선택요소(A)와 선택요소(B)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척도를 선택하게 된다.

[표6] AHP 척도의 구성

문항	선택요소(A)		가장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가장 중요		선택요소(B)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유교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총 105부의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6월, 현재 재학 중인 남녀 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상으로 하였다. 무작위 분석결과 일관성(Consistency Rate, CR)이 0.1 보다 큰 설문응답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서 최종 44명의 유효 응답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림 1]은 연령별 참가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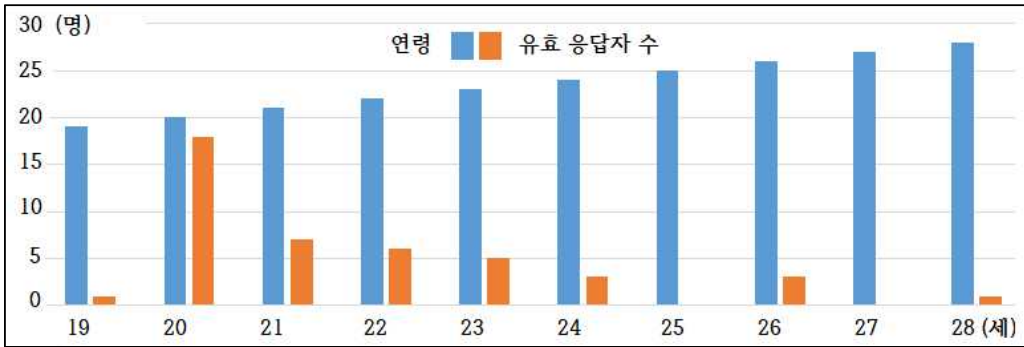
[표 7] 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중요도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관성이 0.067로 0.10 보다 작은

26)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2004년3월1일 등록.

27) 고미숙, 「체험교육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 제7권 1호, 2006, pp.133-162.

28) 이용환, 「체험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2007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7, pp.1-36.

값으로 중요도 순서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층에서 생각하는 중요도 순서를 살펴 보면,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응답에 있어서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어서 체험교육,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연령별 응답자 분포도

[표7] 전체 설문자의 중요도 순서

결과	비중(%)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체험교육	λ_{MAX}	$C.I.$	$C.R.$
전체	100	0.343	0.189	0.223	0.245	4.181	0.060	0.067
순서		1	4	3	2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8>와 같다. 분석결과 남학생은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어서 체험교육이 2위 및 학교교육이 3위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교육은 설문에 제시된 교육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다. 여학생이 생각하는 유교문화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가정교육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교육과 체험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교육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성별 간 교육의 중요도

성별	비중(%)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체험교육	λ_{MAX}	$C.I.$	$C.R.$
남학생	54.55	0.304	0.224	0.216	0.257	4.178	0.059	0.066
여학생	45.45	0.391	0.147	0.232	0.231	4.186	0.062	0.069

나이별로 유교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표 9]처럼 전체 응답자 중에서 20세가 40.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령대의 응답자는 가정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체험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동위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세 연령은 전체 응답자 중 15.91%를 차지하며 가정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며, 이어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순으로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 한편 24세와 26세 연령은 전체 응답자 중 13.64%를 차지하며 모두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체험교육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25세 및 27세 연령층은 설문 응답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9] 나이별 교육의 중요도

나이	비중(%)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체험교육	λ_{MAX}	$C.I.$	$C.R.$
19세	2.27	0.08	0.26	0.21	0.45	4.20	0.07	0.07
20세	40.91	0.42	0.18	0.18	0.22	4.19	0.06	0.07
21세	15.91	0.27	0.23	0.20	0.29	4.21	0.07	0.08
22세	13.64	0.35	0.12	0.29	0.24	4.13	0.04	0.05
23세	11.36	0.22	0.11	0.34	0.33	4.20	0.07	0.07
24세	6.82	0.33	0.24	0.22	0.22	4.15	0.05	0.05
25세	0.00	—	—	—	—	—	—	—
26세	6.82	0.37	0.30	0.17	0.16	4.17	0.06	0.06
27세	0.00	—	—	—	—	—	—	—
28세	2.27	0.33	0.24	0.24	0.19	4.15	0.05	0.06

6.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에서 20대의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2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향교, 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이 20대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유교문화가 20대에게 향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장태(1999)는 유교의 현대적 기능은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가족주의에 대한 의식이라고 한다.²⁹⁾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유교문화는 호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의 금혼제도 폐기 등 사회

29)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출판부, 1999.

제도의 변화에 유연성을 보이지 못하여 보수적 가치관으로 탈권위주의를 주장하는 젊은 층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와 서원이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 등을 시현하는 공간적 가치로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한국문화의 역사성을 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거스를 수 없다. 전통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문화 창조에 있어 수용과 창조의 융복합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유교문화를 상징하는 향교·서원이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연계성을 갖고 융복합 문화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20대의 젊은 층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교·서원 문화관광프로그램을 통한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는 20대 연령층이 가정교육을 통해 유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2015년 통계청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족 수에서 3세대의 비율은 5.7%, 2세대의 비율은 56.4%, 1세대의 비율은 15.9%, 1인가구는 21.3%다.³⁰⁾ 이미 우리 사회는 핵가족 사회이며, 1인 가구 사회로 혈연적 가족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교문화를 가정교육으로 담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나 학교교육이 가정교육에서 놓친 전통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교·서원이 전통교육과 인성교육, 지역문화관광과의 연계성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향교·서원에 인적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는 체험교육을 위해 20대 연령층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하여 참여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2019년 5월 4일~6일 창덕궁에서 열린 제5회 궁중문화축전에서 왕실도화서체험 프로그램은 20대 연령층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전통문화가 박물관 문화가 아닌 현대에서도 체험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향유문화라는 것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는 유교문화 및 전통문화를 습득에 취약한 20대 연령층을 위해서는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산업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콘텐츠산업의 주역으로서의 20대 연령층은 전통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역량이다. 이를 위해 향교, 서원과 관련한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캐릭터, 광고,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용 콘텐츠를 통한 다양한 접근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체험교육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 77억 명의 인구 중 스마트폰을 쓰는 36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미디어는 전통문화를 통한 한국의 고유문화의 향유층을 확대하는 기회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

30) 통계청 : <http://kosis.kr/search/search.do>, 2019년 6월7일 검색.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계기로 향교와 서원 등 전통적 지역문화자원을 디지털미디어콘텐츠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미숙, 「체험교육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 제7권 1호, 2006.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출판부, 1999.
- 남상호, 「서원의 인성교육」, 『인문과학연구』, 제49집, 2016.
- 박선영, 「청소년 시민교육의 전달체계 수립과 발전방안」, 『청소년학연구』, 제22권 2호, 2015.
- 배성의, 「성별지역 간 사회교육 기회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1호, 2005.
-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7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7.
-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2018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2018.
- 유광민·김남조, 「Space Syntax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전략」, 『관광학연구』, 제33권 제6호, 2009.
- 이수환, 「2000년 이후 향교서원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집』, 제67집, 2017.
- 이용환, 「체험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7.
- 이재민·김지희, 「지역문화 주제공원으로 유교랜드 특성」,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0호 2015.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이하나, 「論語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양상과 가능성」, 『민족문화』, 제46집, 2015.
- 이호영·김상돈,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5권 제2호, 2004.
- 진성수, 「한국 유교 현황과 현대화 전략」,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3집, 2018.
- 진성수, 「양명학으로 본 가정교육」, 『양명학』, 제39호, 2014.
- 황옥선, 「한국거주 중국유학생의 한국 전통문화 “한(韓) 스타일” 에 대한 인식」, 『글로벌문화콘텐츠』, 17호, 2014.

<인터넷 자료>

- <https://www.mcst.go.kr>, 2019년 4월 6일 검색
- <https://news.sbs.co.kr/news> 2019년 6월 4일 검색
- <http://kosis.kr/search/search.do>, 2019년 6월 7일 검색

【Abstract】

An Educational Consideration on the Revitalization of
Confucian Culture as a Local Cultural Resource:
at the Center of Hyanggyo and Seowon

Mee Young Bang (mybang419@naver.com)

One of the important strategies in developing content that gives originality to local culture is to utilize cultural resources. Hyanggyo and Seowon are the fundamental resources of local culture and their utilization is higher than anything else. However, Hyanggyo and Seowon have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the traditional values and expand into cultural conten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perates Confucian Academy, Youth Personality Education, Hyanggyo and Seowon Culture and Tourism Program through the Confucian Revitalization Project Group.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ettling down from a support project into a self-sustaining program. Nine Seowons, including Korea's living history, are listed as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y" in UNESCO's World Heritage.

Although Korea's Seowon is drawing attention worldwide, the participation rate of those in their 20s in cultural and tourism programs in Hyanggyo and Seowon is significantly lower. The participation of those in their 20s who make the most use of social media to promote Confucian culture in the New Media era is of utmost importance than anything else. This paper is for the local cultural resources of Confucian culture, based o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Confucian culture held by those in their 20s. And we are looking for a new turning point in the Hyanggyo and Seowon Culture and Tourism Program in order to revitalize Confucian culture.

Key Words: promoting confucian culture, Hyanggyo, Seowon, World Heritage,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